

6/3/18

설교 제목: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3 장 1-5 절

- (호 3: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 (호 3: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절관주** 출 22:17
- (호 3: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 (호 3: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절관주** 요 19:15
- (호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호세아 선지자를 출연시켜 만든 드라마 한 편을
보여준 후 그 드라마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독려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신 드라마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개념, 법적 개념, 사회적 개념,
제사적 개념 등을 총동원합니다.

법적 개념으로의 구원은 양자됨으로, 사회적 개념으로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제사적
개념으로의 구원은 속죄로, 경제적 개념으로의 구원은 구속으로 말입니다.

‘구속(Re-demption)’은 구원을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으로 다시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자기 것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인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아니게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피로 값을 치르고 지금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지만 전에 당신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려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타락하여 바알 신과 영적인 음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2 남 1 녀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버릇을 못버리고 바람이 나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집을 나가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이젠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 생각이 나지만 염치없어 찾아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고멜은 아무런 소망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멜 앞에 뜻하지 않게 전 남편인 호세아가 찾아 옵니다.

호세아는 아무말 없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장가를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알 신을 섬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이스라엘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구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호 3: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영어 성경이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쉬워 NIV 로 보겠습니다.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though she is loved by another man and is an adulteress. Love her as the LORD loves the Israelites, though they turn to other gods and love the sacred raisin cakes."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 아내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 간음한 여인일지라도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같이, 즉 이스라엘이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건포도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년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맛 본 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건포도 떡은 세상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배를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짓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 빠져 왔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조건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어느 정도는 조건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 합당한 사람만 구원하시려 했다면 우리 중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 역시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음란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다 세상을 사랑한 우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호 3: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 때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고멜을 데려 오기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 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언감생심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꿈도 꾸지 못한 고멜은 뜻밖에 자신을 용서하고 찾아와 값까지 지불하고 자신을 데려가는 전 남편을 보면서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값없이 거져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편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함으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값을 치릅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 사랑때문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때문에 우리의 곧았던 목이 숙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호 3: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용서하고 값까지 치르고 데려왔건만 고멜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시다.

고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시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말은 단순히 너는 평생 나와 해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기다릴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것처럼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데도 여전히 못된 음녀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고멜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호세아의 괴로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구속해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와하는 당신의 심정을 알리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십시다.

(호 3: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시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있던 7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로 기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 같은 숭배 대상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되어 그런 짓거리를 할 여유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같은 고난의 기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4.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호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마지막을 마침내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우리 아들 David 이 지난 목요일 밤 GS와 Cleveland Basketball final 1st Game 을 보았습니다.
연장전까지 치룬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Cleveland 편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여 응원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Cleveland 가 지고 GS 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를 보기 전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렇게 초조하고 흥분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냥 느긋하게 Game 을 즐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종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초조해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진실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구속의 사랑을 모르기 원치 않으십니다.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지금 이 은혜받을 때입니다.